

## ‘동다송’ 기반은 실학과 불이선 사상

선서화·선시·다도 등  
예술에 나타난 선사상 강연

박동춘씨 ‘한·중·일 선다 비교’ 발표



“초의 스님은 손수 차를 따고 만들고 연구하면서 중국 다서에 나온 채다(采茶) 시기와 우리나라의 채다 시기가 다를까를 지적하는 등 실제적인 연구와 체험을 기반으로 <동다송>을 저술했습니다. 이러한 점은 초의 스님이 전문 다서의 연구와 고증을 통해 이론과 실재를 겸비하려 했던 실사구

박 소장은 이날 차와 불교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의 차문화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초의 스님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특히 박 소장은 “초의 스님의 <동다송>은 조선 후기 실학과 불이선(不二禪) 사상 사상을 기반으로 저술된 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 선종의 차 통한 깨우침 강조...차문화 부흥 중요 계기

시(實事求是) 정신이 차를 연구하는 태도로 표출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예술의전당이 개최하는 ‘3일간의 동안 거-선(禪)과 예술’ 둘째 날인 1월 26일,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4층 문화사랑방에는 강의의 듣기 위해 모인 100여 명의 사람들이 가득했다. ‘3일간의 동안 거’는 선서화와 선필, 선시, 다도 등 예술에 나타나는 선사상을 주제로 한 연속 강연회로, 이날 특강에서는 박동춘 소장(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사자)이 ‘한·중·일 선다 비교’를 발표했다.

박 소장은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 차문화의 흐름을 짚은 뒤 “차와 선종의 융합은 차 문화사에 있어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을 가져오는 중요한 분기점을 이루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가야나 백제, 신라 때부터 이미 차가 있었지만 일정한 형식을 갖춘 차문화는 선종의 유입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선 시대에 이르러 과도한 음다 행사와 백성들에 지워진 세 부담, 송유역별 정책 등으로 차문화는 일부 사원의 수행자와 이들과 교류하던 문사들에 의해 명맥을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필된 초의 스님의 <동다송>은 우리나라 차문화를 다시 조명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이 박 소장의 주장이다. 박 소장은 “초의 스님은 다산 정약용과 추사 김정희 등의 유학자들과 교류하며 고증학과 실사구시를 통한 이용후생(利用厚生) 정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며 “따라서 <동다송>은 단순히 초의 스님 한 사람의 다도사상이 아니라 당시 지식인들의 한국 차문화에 대한 자각이자 자신감의 발로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박 소장은 “<동다송>에는 ‘부처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한 관계이며 선 자체의 우열과 등급을 둘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 ‘일미선(一味禪)’ 사상과 ‘차와 불, 체(體)와 신(神)을 나누어 보지 말라’는 ‘불이선’ 사상이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차가 불의 신(神)이 되고 불이 차의 체(體)가 되어 한 진의 조화로운 차로 완성되었을 때 그 우러난 것들을 본체로 보았으며, 그 중정을 잃지 않을 때 비로소 다도가 완성된다는 것이 초의 스님의 다도사상이라는 것이다.

“초의 스님은 <동다송>에서 박학과 고증을 통해 우리나라 차문화의 자긍심을 일깨우고, 한국 차의 특색을 갖춘 고유한 제다법을 완성했으며 우리의 풍토에서 특징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차의 기운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님은 차를 깨우침의 방편으로 삼았으며 자연과의 합일, 평상심이 바로 도(道)라는 다도사상을 펼쳤다는 점에서 우리 차문화 부흥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글=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초의 스님이 쓴 <동다송>(과사진위) 조선 말기에 제작된 스님의 진영(사진 아래), 공인박물관 소장.



## 김해 ‘장군차’ 제다공장 설립

대량생산 터전 마련

경남 김해시가 지역특산물인 ‘장군차(將軍茶)’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나섰다.

김해 장군차영농조합(조합장 김종국)은 1월 15일 김해시 상동면 매리 소감마을에 지상 2층, 연면적 165㎡ 규모의 김해장군차 제다공장을 설립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김해 장군차 영농조합이 지난해 11월 6천 여 만원을 들여 건립한 이 공장에는 장군차 가공에 필요한 채엽기, 비빔기, 건조기, 튀김솥 등의 생산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오는 4-5월경 장군차가 수확되면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해 지역은 서기 48년 가야국의 시조인 수로왕의 허황후가 인도에서 시집을 때 차씨앗을 가져와 차가 재배되었다고 전하고 있으며, 김해 차나무가 ‘장군차’란 이름을 갖게 된 것은 고려 충렬왕이 왜구 정벌을 위해 이곳에 들렀다가 차의 맛과 향이 뛰어나다고 해 ‘장군차’라고 명명한 것이라는 기록(신증동국여지승람)이 전한다.

매년 5천여 통(통당 100g)의 장군차를 생산할 계획인 김해시는 “장군차는 잎이 타원형으로 쓴 맛이 적고 탄닌과 비타민 C, B1, B2 등이 다른 녹차에 비해 많이 함유되어 있다”며 “제다공장 설립으로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한 장군차를 전국유통망을 통해 알리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지난 99년부터 대동면과 상동면 등지의 50여 농가에 150여만 그루를 보급한데 이어 오는 2007년까지 100만주를 추가 보급키로 하는 등 장군차 복원에 앞장 설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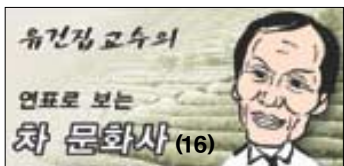
## 녹차, 캡슐로 먹어야 흡수 빠르다

美 해닝 박사 연구보고서 발표

녹차는 음료로 마시는 것보다 추출물을 캡슐에 넣어 직접 복용하는 것이 항산화효과가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의 수전 해닝 박사는 영양학 전문지 ‘임상영양학 저널’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녹차를 물에 타서 마셨을 때 보다 추출물을 캡슐에 넣어 먹었을 때 녹차의 항산화물질인 플라보노이드의 체내 흡수량이 많아진다”고 주장했다.

해닝 박사는 30명에게 한번은 녹차를, 또 한번은 같은 용량의 녹차추출물을 캡슐에 넣어 먹게 한 뒤 각각 8시간에 걸쳐 혈액샘플을 채취, 분석한 결과 후자의 경우에 혈중 항산화성분 수치가 더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 고려 다촌 형성-茶 개인 판매금지 중국

는 차 생산 마을을 두어 매년 차를 만들어 절에 바치도록 했다. 중국에서도 다마(茶馬)무역이 절정기를 이루어 국가에서 각다벌과 다마법을 고쳐 전매(專賣)하고 개인들이 사고 팔지 못하게 하여 나라 재정으로 흡수했다. 수많은 다서가 쓰여진 연구자의 융성기였다.

① 의천은 왕이 다약을 하사함에 상소를 올렸다. <대각국사 문집>  
② 이자현은 후에 예종 때 차를 하사받고 수차 왕의 부름을 받아 차를 마시고 하사품을 받았다.

③ 은으로 된 기명들을 송나라에 보낼 정도면 다기 또한 금으로 만들어진 것이 분명하다.

④ 문종 32년 송나라 사신 안도와 진목이 여러 물품과 용봉차 열 근을 보냈다.

⑤ 매요신(梅堯臣, 1002~1060): 송대 시인으로 차를 좋아해서 <남유가 명부>를 썼고 <왕릉선생집>에 다시들을 남겼다.

인종(仁宗, 재위 1022~1063): 다법을 많이 고치고 사다법(射茶法)과 각다법(鑿茶法)을 파(罷)했다.

⑥ 송자란: 송대의 차학자. <동계시

다록>을 저술했다.

⑦ 왕안석(1021~1086): 송대 문학가로 차를 마셨으며 특히 양선차를 많이 마셨다. 각다법을 파하게 했다.

사마광(1019~1086): 송대 사학자로 <자치통감>을 찬술하고 많은 저술을 남겼으며 다시가 많다.

⑧ 소식(1037~1101) 송대 문인으로 수많은 다시를 남겼다. 특히 ‘엽가전(葉家傳)’이 유명하다.

황정건(1045~1105): 송대 시인으로 많은 다시가 애창되고 있다.

진관(1049~1100): 송대 문인으로 ‘오백나한도기’ ‘만정방’ 등에 차 얘기를 남겼다.

⑨ 황유: 송대 차인으로 <품다요록(品茶要錄)>을 저술했다.

시대별 연표		
한국	중국	일본
1053 국왕(문종) 문덕전에서 보살계 중국사에서 팔관회 개최	① 매요신, 인종이 활동 ⑤	1052 우치병등원(宇治平等院)
1056 의천(義天)이 차를 하사받고 상소 ①	1059 차전제 폐지	
1061 이자현(李資賢)의 출생 ②	1064 송자란(宋子安) ⑥	
1066 해린에게 차 하사	1067 왕안석(王安石) 사마광(司馬光) 활동 ⑦	헤이안 시대
1067 흥국사에서 5주 동안 연등회 개최 의천을 승통으로	1069 청묘법 시행	
1071 송(宋)과 국교회복	① 다마무역이 성행함	
1072 송에 은기명(銀器) 보낼 ③	② 소식, 황정건, 진관 등의 활동 ⑧	
1073 회경전에서 5일 동안 반야도량		
1074 내전에서 백고자를 열다.		
김양광이 송에서 도서 수집	1074 차 수출, 정부 독점	1072 성시(成壽)이 송에서 다회를 보다
1076 왕이 보살계를 받다	1075 황유 등의 활동 ⑨	1078 다사기록(茶事記)이 전함
1077 금자(金資) 화엄경을 만들		
1078 송나라 사신이 용봉차를 가져옴 ④		
1079 송에서 의약서를 가져옴	1079 일부지역 납차통상 허용	

모든 감정을 탁 봐버려라!

올 초 조계사에서 3개월간 열린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대법회’에서 11명의 선사들이 펼친 법문을 모았다. 선의 본질과 의미, 회두 두는 법, 선 수행의 요제 등을 주제로 선의 정수와 삶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종일법

‘마음 공부 제대로 해서 행복하게 살자’라는 공통된 메시지로 때로는 자상하게, 때로는 추상 같은 엄격함으로 자신들의 수십 년 수행 경험을 청중들에게 전했던 지난봄 조계사 선원장 대법회 법문 내용이 책으로 묶여 나왔다. -조선일보

지난봄 매주 3천여 명이 넘는 인원이 들리는 뜨거운 열기로 이어진 선원장 법회의 내용이 한 권의 책으로 묶여져 나왔다. -매일신문

■ 고우 스님-선의 본질과 의미 ■ 무어 스님-취두는 법 ■ 대원 스님-선과 계단 ■ 환주 스님-마음은 무엇인가 ■ 현산 스님-마우고 쉬는 공부기 전 ■ 영진 스님-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있다 ■ 지환 스님-선 수행의 요제 ■ 해국 스님-머무는 곳이다 주인되어 진실되게 사는 법 ■ 현종 스님-한국인의 세계화와 생활전 ■ 도원 스님-선 스스로 만드는 행복 ■ 실경 스님-단야 계단이란 무엇인가 ■ 백법법문 법장 스님-경어·만공 선사 가르침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Tel:02)737-0695 Fax:02)737-0696 www.yosiamun.com

여시아문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초청 대법회  
**禪 너는 누구나**  
선원장 스님들의 사자후



신국판 / 288쪽 / 값 9,000원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현재의 책



주제가 있는 ‘禪’ 이야기

선어삼백칙

(禪語三百則)

신국판 / 420쪽 / 차차서 講解 값 10,000원 / 여시아문

지금 나에게 질문하는 자, 이것이 바로 너의 보배이다  
일체를 갖추고 있으며, 조금의 흠결이나 부족함이 없다

‘선어삼백칙 - 주제가 있는 선 이야기 삼백 가지’는 역대 선지식들의 수행담과 득도를 향한 열정이 담긴 핵심적인 여록을 모은 책이다. 이 책은 ‘스스로 불성을 지니고 있다’, ‘문득 깨달아 부처가 된다’, ‘한 울도 걸리지 않는다’ 등 주제별로 선 수행에 얽힌 일화를 소개하고 있어 무조건 ‘어렵다’고만 느껴온 선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Tel:02)737-0695 Fax:02)737-0696 www.yosiamun.com

여시아문